

【논문】

# 도니당안으로 본 청-러 국경분쟁 초기 전황과 청 조정의 결정

홍은\*

## 차례

- I. 서론
- II. 1655년 청-러 국경분쟁 전황
- III. 전황에 대한 동북지역 관리와 병부의 보고
- IV. 청 정부의 결정과 황제의 윤허
- V.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1655년 信郡王 도니(1636-1661)가 順治帝에게 상주한 당안을 활용하여 청-러 국경분쟁 초기의 동북 전황과 이에 대한 청나라 정부의 지원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당안은 분쟁 초기 동북 八旗의 전황을 보고하고 병력과 군수물자를 요청하는 사르후다의 문서, 이에 대한 청나라 兵部和 議政大臣의 논의 및 순치제의 윤허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청-러 국경분쟁 관련 문헌 중 초기의 기록은 청나라 내부의 논의 과정과 관련된 기록이 거의 없다. 도니당안은 이러한 기존 문헌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도니당안에 따르면, 쿠마르스크 전투에서 동북 자쿰구사가 패퇴한 후 청나라의 전황은 불리하였다. 이 해에 루스차르국이 수군을 활용하여 남하하자 이 지역의 여러 씨족 마을이 항복하였지만 청나라는 여기에 대처하지 못하였다. 이에 동북 지휘관들은 漢軍八旗 소속의 육군과 수군의 파병 및 이 부대가 활용할 군수물자를 요청하였다. 이때, 이들은 조선의 조총수와 수군 파병도 요청하였다.

\* 中國黑龍江大學 滿學研究院 博士後

병부의 관리들은 이를 접수한 뒤 대부분 승낙하였지만 파병 인원을 줄이고 군수물자를 인근 지역에서 조달받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것은 당시 한군팔기부대가 대부분 南明征伐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동북에 파견될 수 없었던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의정대신들은 병부 관리들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였으나 조선의 수군 파병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는 조선의 수군이 파병될 경우 청나라가 부담해야 할 보상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순치제는 이러한 의정대신과 병부의 최종안을 윤허하였다.

한편, 이 당안에서 언급한 지원안은 이를 뒷받침할 조선이나 청나라의 문헌이 발굴되지 않아 시행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후에 청나라 6부에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당안이나 『北征錄』 같은 조선의 관련 문집류 문헌이 발굴되어야 파병여부에 대한 추가 연구가 가능하다.

주제어: 도니당안; 청-러 국경분쟁; 팔기(八旗); 의정대신(議政大臣); 한군팔기(漢軍八旗); 나선정벌(羅禪征伐)

## I. 서론

청-러 국경분쟁은 1652년 아찬스크전투<sup>1)</sup> 이후 1689년 네르친스크조약<sup>2)</sup>을 맺을 때까지 청나라와 루스차르국<sup>3)</sup> 사이에 있었던 국경분쟁이다. 이 분쟁은 초기, 소강기, 후기로 셋으로 나눌 수 있다. 분쟁 초기는 아찬스크전투부터 1658년 청군의 대규모 공격이 있을 때까지이고, 소강기는 1658년 이후 1682년 혹은 1684년 양자 사이에 재차 대규모 전투가 발생하기 전까지이다. 후기는 대규모 전투

---

1) 아찬스크전투는 아찬스크(지금의 하바롭스크)에서 1652년 청나라의 하이씨가 이끄는 팔기군과 하바로프(1603-1671)가 이끄는 루스차르국의 시베리아 원정대 사이에 있었던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팔기군은 대패했고, 사령관 하이씨는 처형당했다.

2) 알바진전투 후 청나라와 루스차르국이 맺은 국경 조약이다. 이 조약은 아시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3) 루스차르국은 이반 4세(재위기간: 1533-1584)가 1547년 모스크바대공국을 개편한 후 1721년 표트르 1세(재위기간: 1682-1725)가 러시아제국을 선포할 때까지의 러시아 국명이다.

이후 양자가 1689년 네르친스크조약을 맺을 때까지이다.

현재 한국, 중국, 러시아 및 여러 나라들의 청-러 국경분쟁 연구는 분쟁 후기와 네르친스크-카흐타조약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이 나타난 원인은 이 분쟁이 훗날 중-소 국경분쟁<sup>4)</sup>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 논문은 분쟁 초기에 관한 연구이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그 경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분쟁 초기 관련 연구는 한국의 연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양학자들의 연구가 많다. 이러한 연구 현황은 각국의 문헌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청-러 국경분쟁과 관련된 문헌의 범위를 분쟁 전체로 설정하면 분쟁 당사국 중 하나인 청나라의 문헌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또 다른 당사국인 루스차르국과 지원군을 파병한 조선의 문헌이 많다. 그렇지만 문헌의 범위를 분쟁 초기로 제한하면 조선과 러시아에 관련 기록이 더 많이 남아 있다.

먼저 조선의 문헌은 초기 관련 기록이 많고 소강기와 후기 관련 기록이 거의 없는데, 그 이유는 조선군의 파병이 분쟁 초기에만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조선 문헌은 파병 사무를 맡은 조선 관리들의 보고서<sup>5)</sup>나 참전한 개인 기록<sup>6)</sup>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기록의 특징은 조선인의 눈으로 본 분쟁 초기 동북 청나라 군대와 루스차르국 군대에 대한 자세한 묘사이다. 이 때문에 한국 학자들의 연구는 분쟁 초기에 집중되어 있다.

루스차르국은 분쟁 당사국이므로 이와 관련된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분쟁 초기에 작성된 대표적인 문헌으로 시베리아 원정대가 알렉세이 1세에게 올린 보고문이 있다.<sup>7)</sup> 당시 루스차르국의 주요 산업 중 하나가 모피 무역이었다. 그래서

4) 중국과 소련 사이에 발생한 국경분쟁이다. 양국 군대가 1969년 3월과 8월에 우수리강 중류 전박오섬(珍寶島, 현재 中國 黑龍江省 虎林市 珍寶島鄉)과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무력 충돌을 하여 양국 간 전쟁 위기가 있었다. 이후 양국은 1990년대 국경협정을 맺어 외교적으로 해결하였으며, 2000년대에도 여러 차례 보안 협정을 맺었다.

5) 이러한 보고서는 『同文彙考』, 『通文館志』 등에 기록되어 있다.

6) 조선의 무관들은 자신이 참전한 전투에 대해 일기 형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2차 나선정벌 당시 조선군을 통솔한 申澗(1619-1680)은 『北征錄』을 저술했다.

7) 『國譯北征日記』의 부록에 1658년 시베리아원정대의 보고서가 번역되어 있다(朴泰根, 1980, 『國譯北

시베리아 원정대들은 차르에게 모피 확보를 위한 원정 상황을 자세히 보고 해야 했고, 이는 러시아에 분쟁 관련 문헌이 많은 이유 중 하나이다. 러시아는 이미 17세기 국경분쟁 관련 문헌을 대다수 개방하였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 등 현대 서양 역사학자들은 중-소 국경분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분쟁 초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하였다.

청나라는 분쟁 당사국이므로 많은 기록을 남겼으나, 현재 초기 관련 문헌 중 미개방된 자료가 많다. 청나라 문헌은 만주어 혹은 만주어와 타 언어를 함께 사용한 자료가 주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며,<sup>8)</sup> 문헌의 종류는 檔案類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中國第一歷史檔案館은 소강기와 분쟁 후기, 전후 처리와 관련된 康熙帝(재위기간: 1661-1722)시기부터 그 이후 시기의 당안들을 먼저 개방하였다. 그러나 이에 앞선 順治帝(재위기간: 1643-1661)시기 분쟁 관련 당안은 정리 중이므로 일부 자료만 공개된 상태이다. 한편, 다른 청나라 문헌 중 『淸實錄』 등은 분쟁 초기 관련 내용이 축약되었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국경분쟁 초기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다.

한국의 분쟁 초기 관련 연구는 역사지리학 방면<sup>9)</sup>과 역사학 방면<sup>10)</sup>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외에 민족학 방면<sup>11)</sup>과 군사학 방면의 연구도 있다. 한국에서의 연구는 조선 문헌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일부 청나라와 루스차르크 문헌을 참고했다.<sup>12)</sup>

征日記』,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8) 당시 청나라의 당안은 한족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滿漢合璧文 혹은 漢文 당안을 작성하였지만, 한족과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滿漢合璧文 혹은 滿文 당안으로 작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청-러 국경분쟁 관련 대다수의 청나라 문헌은 만문 혹은 만문과 기타언어로 쓰인 문헌들이나 유일하게 『羅刹方略』은 한문으로만 쓰여있다.
- 9) 권혁래, 2013, 「북정록과 나선정벌 노정 연구-회령-목단강시 구간을 대상으로」, 『洌上古典研究』 37.
- 10) 桂勝範, 2013, 「17세기 중반 나선정벌의 추이와 그 동아시아적 의미」, 『史學研究』 110; 朴志培, 2018, 「17세기 중반 러시아의 동북아 진출과 '나선정벌'의 의미」, 『歷史學報』 240.
- 11) 崔元午, 2018, 「나선정벌기 흑룡강 유역한 소수민족의 삶과 대응-다호르고사를 중심으로」, 『洌上古典研究』 65; 문상명, 2018, 「나선정벌 신류 장군의 북정록 北征錄에 담긴 허저주(赫哲族)의 삶과 문화-헤이룽장성 자무쓰시 아오치촌(佳木斯市 敖其村) 허저주를 중심으로」, 『洌上古典研究』 65.
- 12) 桂勝範, 2018, 「러시아 자료로 본 1650년대 흑룡강원정」, 『洌上古典研究』 65.

러시아를 포함한 서양의 분쟁 관련 연구는 갈등 원인과 전반적인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sup>13)</sup>가 주를 이룬다. 서양학자들은 주로 루스차르국 문헌을 참고하고, 청나라의 문헌을 일부 참고했다. 중국의 연구는 분쟁 초기 관련 연구가 적고 분쟁 후기와 관련된 외교학이나 역사학 방면의 연구<sup>14)</sup>가 주를 이룬다. 분쟁 초기에 관한 중국의 연구는 조선군 파병을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조공 관계와 연관 지어 서술하거나,<sup>15)</sup> 한국과 러시아의 문헌을 주로 활용했다.<sup>16)</sup>

본 연구자는 최근 중국제일역사당안관에서 信君王 도니(多尼, 1636-1661)<sup>17)</sup>가 작성한 제본 「題爲羅刹入境侵擾請派官軍進剿事」<sup>18)</sup>를 발견하였다. 이 당안은 분쟁 초기인 1655년 동북지역의 팔기(만문: jakún gúsa) 전황과 동북지역 관리들의 요청 사항, 이에 대한 중앙 관리들의 논의와 결정 및 순치제의 최종적인 윤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당안에 따르면 당시 동북지역의 팔기군은 쿠마르스크요새 전투의 패배 이후 루스차르국의 남하에 대처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동북지역의 관리들이 병부에 漢軍八旗<sup>19)</sup>에 소속된 병력의 파견과 조선군의 파병을 급히 요청했고, 이에 병부

- 13) 루스차르국의 관점에서 이 분쟁을 연구한 학자들로 제임스 포사이스(James Forsyth)와 브루스 링컨(W. Bruce Lincoln), 그리고 패트릭 마치(G. Patrick March) 등이 있다. 이들은 이 분쟁과 관련 연구를 하며 저서를 썼다. [Forsyth, James, 1994 "A History of the Peoples of Siberia: Russia's North Asian Colony 1581-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coln, W. Bruce, 2007, "The Conquest of a Continent: Siberia and the Russians", *Cornell University Press*]
- 14) 韓曉梅, 2014, 「乾隆朝滿文檔案中的雅克薩與尼布楚」, 『滿語研究』 2014년 1期.
- 15) 唐烈, 2018, 「朝鮮王朝與清朝外交關係的構建及其影響研究1623-1776」, 『延邊大學學報』 2017년 5期.
- 16) 일제강점기 일본학자들은 청-러국경분쟁과 관련된 조선 문헌을 참고하여 연구하였다(南昌龍·顧銘學, 1990, 「羅禪征伐研究及其有關史料」, 『東北師大學報』 1990년 6期).
- 17) 信郡王 多尼(만문명: aisin gioro doni, 한문명: 愛新覺羅 多尼)는 청나라 황실의 종친으로 鑲白旗(만문: kuhuhe šanggihan gúsa)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는 天命帝(재위기간: 1616-1626)의 15번째 아들인 和碩豫親王 多鐸(만문명: aisin gioro dodo, 1614-1649)의 次子이다. 『청실록』 등 내 도니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는 주로 청나라의 남명정벌에 종군하고, 도니의 당안을 통해 그는 간혹 청-러 국경분쟁 관련 사무도 맡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18) 中國第一歷史檔案館 소장. 당안번호: 02-02-019-001251-0027.
- 19) 漢軍八旗(만문: ujen cooha)는 한족으로 구성된 팔기이다. 한군팔기의 만문 명칭 ujen cooha는 직역하면 무장한 군대라는 뜻으로, 한족 군대를 편성하지 않았던 시기에 이 단어는 중무장한 군대를 의미한 단어 이었다. 이후 한족으로 구성된 군인들이 대포와 조총 등으로 무장한 것을 ujen cooha로 부르면서 이 단어는 한군팔기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등 중앙관리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순치제에게 조선군 파병의 유히를 상주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순치제가 이 요청을 유히하였다. 본 연구자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청나라 관리들이 조선군 파병 요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과 순치제가 이를 유히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청나라 문헌에는 제1차 나선정벌(1654) 당시 순치제가 조선에 파병을 요구했다는 기록만 남아 있을 뿐 파병 요청에 관한 청나라 내부의 논의를 자세히 기록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 2년 뒤인 1656년에 작성된 어혈리당안에 조선군의 필요성을 설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sup>20)</sup> 도니당안은 어혈리당안보다 1년 앞서 작성된 것으로, 분쟁 초기 청나라의 시각과 동북지역 팔기의 현황 및 청 조정의 대처 등을 자세히 분석해볼 수 있는 사료가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도니당안을 중심에 두고 어혈리당안 등을 참고하여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 1655년 청-러 국경분쟁 현황

### 1. 도니당안을 통해 본 순치 12년(1655) 청-러 국경분쟁 현황

청-러 국경분쟁은 초기와 소강기, 후기로 나뉜다. 분쟁 초기 청나라 동북 자군 구사가 아찬스크 전투에서 패한 후 루스차르국군은 본격적으로 黑龍江<sup>21)</sup> 지역으로 남하하였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청나라는 조선에 2차례 파병(1654, 1658)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한국 역사학계에서 ‘羅禪征伐’이라고 명명한다. 청나라는 제1차

20) 필자는 2018년 병부시랑 어혈리(만문명: eheli, 한문명: 額赫里, ?-?)가 중앙의 우선초하를 동북에 파견하는 대신 조선군의 교관을 영고탑으로 동북지역 한군기의 육성을 주장한 당안을 활용하여 논문을 썼다. [홍은, 2018, 『額赫里的 檔案으로 보는 청·러 국경분쟁 초기 漢軍八旗軍 상황과 조선을 통한 문제 해결』, 『東亞人文學』] 이 어혈리당안 외에는 현재 개방된 청나라 측 분쟁 초기 조선군 파병 관련 당안이나 역사서 기록에 파병을 요구했다는 사실만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술하지 않았다. 어혈리당안: 中國第一歷史檔案館 소장, 당안번호: 02-02-019-001252-0010, 당안명: 『題議派漢軍炮手至寧古塔并請朝鮮兵丁教習當地兵丁使用鳥槍事』.

21) 흑룡강의 만문명은 sahalıyan ula이고, 러시아명은 Peka Amyp이다.

나선정벌(1654)로 루스차르국의 남하를 일시적으로 저지하였다. 그러나 청나라가 쿠마르스크<sup>22)</sup> 전투에서 패하자<sup>23)</sup> 루스차르국의 시베리아 원정대는 재차 남하했다. 이후 루스차르국군은 1658년 조선군의 제2차 나선정벌과 내부 병력 지원으로 강화된 청나라 동북 팔기와의 전투에서 패하여 흑룡강 지역에서 철수하였다.

1658년부터 1680년대 초까지 소강기동안 청나라는 흑룡강 지역에 정부 차원의 병력 지원이 없었고, 루스차르국은 시베리아 원정대를 지원하였으나 그 규모가 작았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동북 자쿰구사와 니키포르 체르니코프스키(?-?)의 私設 시베리아 원정대 사이에 국지전만 있었다. 이는 양국 정부가 내분과 다른 대외원정으로 인해 흑룡강 지역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기간 청나라는 南明征伐을 마무리 지었으나 곧 三藩의 亂(1673-1681)이 일어났다. 그리고 루스차르국은 국내에서 카자크족의 반란(1670-1671)과 왕위 계승 문제<sup>24)</sup>가 발생했으며 러시아-튀르크전쟁(1676-1681)도 있었다.

강희제는 삼번의 난을 진압한 직후 알바진에 주둔한 시베리아 원정대를 공격하였다(알바진전투). 이때 루스차르국은 왕위 계승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오스만 투르크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청나라의 대규모 공격에 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양국은 네르친스크조약(1689)을 맺고 종전한다. 이 조약은 카흐타조약(1727)<sup>25)</sup>과 함께 아이훈조약(1858)<sup>26)</sup> 전까지 양국의 국경선을 결정한 중요한 조약이며, 현

22) 쿠마르스크는 흑룡강 상류지역에 있는 지역으로, 현재 中國 黑龍江省 大興安嶺地區 呼瑪縣 지역이다.

23) 당시 이 팔기의 주력은 蒙古旗로, 蒙古正白旗(만문: gulu šanggīyan gūsa)의 明安達禮(만문명: mingandali, ?-1669)가 통솔하고 있었다.

24) 알렉세이 1세의 두 왕비 마리아 밀로슬라브스카야(?-1669)와 나탈리아 나리시키나(?-?) 소생의 왕자들 사이에 발생한 왕위 계승의 갈등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마리아 왕비 소생의 포르트 3세(재위기간:1676-1682)가 사망한 후 같은 소생의 소피아 알렉세예브나 공주(1657-1704)가 섭정이 되었다. 이 섭정 시기 청나라와 오스만제국과의 전쟁에서 패하는 등 外治에 실패하여 퇴출되었다. 이 후 나탈리아 소생의 포르트 대제(1682-1725)가 親政을 하면서 이 갈등이 종식되었다.

25) 1727년 청나라와 러시아제국이 통상문제 해결 및 몽골 방면의 양국 국경선을 확정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이다.

26) 아편전쟁(1차 아편전쟁: 1840, 2차 아편전쟁: 1856)으로 인해 청나라의 국력이 약화되자 러시아는 청나라와 새롭게 국경조약을 맺고자 하였다. 이에 체결된 아이훈조약에 따라 양국은 흑룡강의 左岸지역을 러시아령으로 하고, 右岸지역에서 우수리강강까지를 청나라령으로 하며, 연해주를 공동 관리 구역으로 하였다.

재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국경분쟁에서 중국 측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되었다.

도니당안에는 청-러 국경분쟁 초기인 1655년 청나라와 루스차르국 사이의 전황, 이에 대한 청 조정과 황제의 의견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도니당안이 발견되기 전 분쟁 초기 전황을 자세히 기록한 대표적인 문헌으로 조선의 『同文彙考』가 있다. 다만 조선 관리가 이 문헌을 작성하였으므로 청나라 측의 분쟁에 대한 관점이 드러나 있지 않다. 한편, 도니당안은 청나라 동북 팔기가 쿠마르스크요새 전투에서 패한 이후인 1655년 8월에 작성되었다. 이 당안은 題本<sup>27)</sup>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순치제가 朱筆로 답을 적은 표지 부분과 당시 전황, 동북 지역 주민들의 피해 상황, 해당 지역 관리와 중앙 관리들의 의견을 적은 본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655년의 전황은 이 당안 속 寧古塔<sup>28)</sup>昂邦章京<sup>29)</sup> 샤르후다(1599-1659)<sup>30)</sup>의 보고 부분에 1655년의 전황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1655년 여름 루스차르국은 흑룡강과 송화강,<sup>31)</sup> 우수리강 및 이 강의 지류인 비킨강<sup>32)</sup> 지역까지 남하했다. 동북 팔기는 이 지역의 마을을 보호하지 못하여 이곳 주민들은 루스차르국에 항복하고 공물을 상납했으며, 루스차르국군의 取水를 묵인했다. 도니당안에는 당시 이 지역 주민들이 상납한 공물의 품목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루스차르국의 시베리아 원정대 보고문에 따르면 흑룡강 등지의 주민들은 주로 모피류를 상납했으며, 특히 貂皮(담비피)와 狐皮(여우피)를 상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33)</sup>

27) 題本은 명·청 시기 고위 관료가 황제에게 상주하는 문서의 일종이다.

28) 영고탑의 만문명은 ningguta로, 지금의 中國 黑龍江省 寧安市이다.

29) 양방장군은 대장군을 음역과 의역을 혼합한 것으로, 만주어 표기는 amba janggin이다.

30) 샤르후다(만문명: guwalgiya šarhūda, 한문명: 瓜尔佳 沙爾虎達)는 만주 鑲藍旗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는 崇德 시기와 順治 초기에 병자호란 등에 종군하였으며 몽고지역 관련 사무도 맡았다. 야찬스크전투 패배 이후 청나라 정부는 하이썬을 처형한 뒤 샤르후다에게 루스차르국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임무를 맡겼다.

31) 송화강의 만문명은 sunggari ula이다.

32) 도니 당안의 bihin bira는 현재 우수리강의 지류인 러시아 비킨강으로 추정된다.

33) 1980, 『국역 북정일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67쪽.

[표 1] 도니당안에 기재된 1655년 루스차르국의 남하 상황<sup>34)</sup>

보고 일시	보고자	전황 보고
6월 19일-20일	키양투리, 사하이, 우시바	멀저러씨족 마을의 보고(보고자: 가산이 다 풀라다): ① 흑룡강 지역에서 송화강 지역으로 가서 마을을 약탈, 大小人 24명 살해, 37명을 포로로 데려감
7월 6일	만두후	1. 코르치 마을의 보고(보고자: 아후투): ① 우수리강 지역에서 비킨강 지역까지 약탈, 신만주인 100명 살해 ② 흑룡강과 송화강의 경계 지역에 사는 니르긴, 토코로, 거여, 바야라씨족, 가이진 지역에 사는 우자라씨족이 항복하고 공물을 루스차르국에 상납 ③ 주민 누여러, 후시카리, 거이커러가 항복하여 공물을 상납 2. 거이커러씨족 마을의 보고(보고자: 코리하 호토) : ① 루스차르국군의 송화강에서의 취수

34) 원문: ninggutai babe tuwakiyara amba jangginšarhüda i unggihe bithe de.. dergi golo i meljere halai kiyangturi. ninggun biyai juwan uyun de alanjihangge..looca sunggari ula be wesime jimbi sehe manggi., gulu lamun i gendemu niru i funde bošokü sahai de, ajige bošokü usiba, jai juwan duin uksin be adabufi looca be tuwanabume ninggun biyai orin de unggihe.. sahai genefi. meljere halai dehiyen gašan de isinaha manggi..gašani da fulada alahangge..looca sahaliyan ula be wasime. sunggari ula de dosifi. emu udu gašan be tabcilafi. amba ajige niyalma be orin duin waha, gaibuhangge gūsin nadan..tereci uthai wasime genehe sehe manggi..sahai amasi alanjiha.. jai geli yargiyalame wasika be tuwanabume meiren i janggin nigari nirui funde bošokü manduhü de ajige bošokü sahai. jai juwan duin uksin be adabufi nadan biyai ice ninggun de unggihe..manduhü korci gašan isinafi fonjici tokoro hala i ahütui alahangge..looca wasime benefi. usuri ula de dosifi bihin bira de isitala tabcilafi. ice manjui amba ajige niyalma be emu tanggü waha sehebi..tereci uthai looca geli sunggari ula be amasi wasime jidere be. meljire halai silbade gašan de acahabi..loocai amba cuwan juwan emu. ajige juwan emu.. sahaliyan. sunggari ula i jafiyān ci ebsi bisire nirgen. tokoro halai gašan juwan juwe. boo ilan tanggü juwan..geye halai gašan jakün.. boo emu tanggü gūsin emu..bayara halai gašan sunja. boo jakünju.. gaijin i ujala halai boo emu tanggü. ere duin halai boo ninggun tanggü orin emu..erei dorgi tokoro halai niyalma. looca de dahafi alban buhebi sembi..esei ulai jakarame tefi weilehe jeku be. looca gaifi erei hūsun de yabumbi.. erebe sunggari ula i wesihun bargiyafi tebuki sembi.. jai sahaliyan. sunggari ula i jafiyān ci wasihūn bisire irgen nuyele. hūsikari. geikere esei jergi niyalma be looca dahabufi alban gaihabi sembi..erei dorgi de. looca de dahafi alban buhe..efude. geikere halai koriha. hoto..looca juwari oci ulai muke be wesihun wasihūn ini cihai yabumbi.

해석: 영고탑 지역을 방어하는 昂邦章京 沙爾虎達가 보낸 문서에: 內省 멀저러씨의 키양투리가 6월 19일에 보고한 것: 루스차르국(군)이 송화강에 올라왔고, 정랍기의 건더무, 代子 사하이에게 小領催, 14명의 被甲을 수행시켜 루스차르국(군)을 살펴보고 오라며 6월 20일에 파견했다. 사하이가 멀저러씨 40개 마을에 도착했을 때 里長 풀라다가 보고했던 것: 루스차르국(군)이 흑룡강에서 남하하여 송화강에 가서 여러 마을들을 약탈하였다. 大,小人 24명을 죽이고 (포로로) 37명을 데려

## 2. 청나라 동북 팔기의 상황과 중앙정부 지원의 어려움

도니당안에 기재된 1655년 여름의 전황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당시 동북 팔기의 구성을 살펴봐야 한다. 동북 팔기의 육군은 만주팔기<sup>35)</sup>와 몽고팔기<sup>36)</sup> 및 솔론팔기,<sup>37)</sup> 소수의 한군팔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중 만주팔기와 몽고팔기가 주력군이였다. 수군은 만주팔기 혹은 솔론<sup>38)</sup>에 소속된 수군과 한군팔기 소속의 수군으로 구성되어 있다.<sup>39)</sup> 도니당안의 주된 내용이 동북 팔기 내 한군팔기에 소

---

갔다. 여기서 곧 남하하였다고 (보고한) 후에 사하이(가) 다시 보고했다. 다시 (사람들과 마을이) 부상당하고 쇠락한 것을 보고 갔다. 梅勒章京 나가리 소속의 代子 만두후에게 小領催 사하이와 被甲 14명을 수행시켜 7월 초 6일에 (이 곳에) 파견했다. 만두후는 코르치 마을에 도착하여 물어서 토코로씨의 아후투가 보고한 것: 루스차르국(군)이 우수리강(지역)에 가서 비진강 지역까지 진군하며 약탈하였고, 신민주의 大, 小人 100명을 죽였다. 여기에 곧 루스차르국(군)이 다시 송화강(지역)에 다시 남하하였고, (이 군대와 파견된 청나라 관리들이) 멀저러씨의 실바더마을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루스차르국의 대형 선박 11척과 소형 선박 11척이 사할리안올라와 송가리올라의 경계 지역부터 이곳에 있는 니르진씨와 토코로씨의 12개 마을 310家, 거여씨 8개 마을 131家, 바야라씨의 5개 마을 80家, 가이진의 우자라씨 마을의 100家 등 이 4개 씨의 621家 중 토코로씨 사람들이 항복하여 공물을 주었다. 이들은 강으로부터 멀리 살았지만 루스차르국은 힘으로 (이러한 공물들을) 가져 갔다. (루스차르국은) 송가리올라 위 지역에서 (공물들을) 거두며 살았다. 게다가 루스차르국은 사할리안올라와 송가리올라의 경계 아래 지역에 있는 누여러, 후시카리, 거이커리 등 사람들을 항복시켜 공물을 수취한다고 한다. 이들 중에도 (루스차르국에게) 공물을 주었다. 어푸더 거이커리씨의 코리하와 호토(가 이렇게 했다). 루스차르국은 여름이 되자 위, 아래를 오가며 강물을 마음대로 취하였다.

- 35) 만주팔기의 만문명은 manju gūsa이다. 이 팔기는 주로 만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타 민족 출신의 후궁이 황후로 책봉되거나 추존되면 그 후궁의 직계 존속들은 만주팔기로 편입되었다.
- 36) 몽고팔기의 만문명은 monggo gūsa 이다. 이 팔기는 주로 현 내몽고 지역에서 거주했던 몽골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 37) 솔론기는 만문명으로 solon gūsa로 만주지역에 사는 원주민들로 구성된 팔기군이다. 이 원주민들의 민족범위는 흑룡강 지역에서 사는 만주족과 소수민족 주민 등을 포함하였다. 본래 팔기의 기본 구성은 만주족, 몽고족 및 한족으로 구성된 만주팔기, 몽고팔기 및 한군팔기 이나 청나라 초기부터 중기까지 외부 세력과의 전쟁으로 인해 만주지역과 신강지역 등에 솔론기 등 변외의 기를 주둔시켰다. 이들은 청나라 중기 이후 기본 팔기에 흡수되어 재편되었다.
- 38) 이 지역에 잔류한 만주족들은 만주팔기나 솔론기에 속했는데 이들이 두 기 중 어느 기의 소속인지는 알 수 없다.
- 39) 청나라의 수군은 만주기에 속한 수군과 한군기에 속한 수군이 있었다. 만주기(혹은 솔론기)에 속한 수군들은 본래 만주족 고유의 수군으로, 백두산부(지금의 지린성 일대)에 거주하였다. 훗날 강희제 때 러시아군을 견제하기 위해 嫩江 유역으로 이들을 이주시켜 수군영과 마을을 세웠는데 그 중 하나가 현재 만주어 구어를 보존하고 있는 三家子 마을이다. 한편, 한군기에 속한 수군들은 주로 명나라 출신 수군들이었다. 명나라 수군은 명 초기 鄭和(1371-1434)의 원정(1405-1433)과 후기 戚繼光(1528-1588)의 浙江兵法 등을 통해 크게 발전했다. 특히 이들은 여러 화기 사용에 능

속된 육군과 수군 병력의 보강에 대한 대책이므로 당시 동북 팔기 내에서 漢軍旗 소속의 병력은 적었고, 이들이 주력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병력 구성에 따라 이 팔기 내에서는 大船과 대포 등 한군기의 甲士<sup>40</sup>들이 사용하는 군수물자도 부족했다. 이 사실은 여러 조선과 청나라의 문헌에서 확인된다. 『朝鮮王朝實錄』의 「孝宗實錄」 내 효종과 邊戩(?~?)의 대화<sup>41</sup>와 어헐리당안에 따르면 동북 팔기는 분쟁 초기 내내 한군기 병력의 부족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러한 동북 팔기의 구성은 청나라가 동북에 대규모 한군기 병력을 배치하거나 파견하기 어려웠던 상황과 관련이 있다. 청나라는 南明征伐(1644-1662~1664?)과 보급로, 물길 등의 문제로 인해 소수의 한군기 병력만 동북에 배치했고, 이후에도 이 병력을 이곳에 파견하기 어려웠다. 당시 청나라 한군기의 상황을 살펴보면, 입관 후 항복한 명나라 관리들 중 무관 출신들이 비교적 적어서 이 기 내 전투 병력의 보충과 육성은 쉽지 않았다.<sup>42</sup> 그리고 청나라는 鄭成功 등이 南明정부를 지원하여 전황이 불리하게 되자 尙可喜(1604-1676), 耿仲明(?-1649), 佟佳氏(만문: tunggiya) 집안 등 주요 한군기의 지휘관들과 대다수의 병력을 남쪽으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후방에 배치된 일부 한군기 병력들의 대다수는 수도 방위를 담당하였으므로 주로 北京과 瀋陽(만문: mukden)에 주둔했다.

---

숙하였다. 天聰년간(1626-1643)에 명나라 수군 출신의 尙可喜(1604-1676), 孔有德(?-1652) 등이 청나라에 귀순하면서 데리고 온 명의 수군들은 후금 한군기 수군의 전투력을 증강했다.

40) 팔기 내 牛氣(만문: niru, 자쿤구사의 가장 소규모 단위의 부대)의 300명 중 약 10%는 중무장한 갑사(만문: uksin)로 구성되어 있다. 갑사들은 니루 내에서 중무장이 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이 중 한군기의 갑사는 고가품이었던 조총이나 대포 등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41) 『조선왕조실록』 「효종실록」 14권, 효종 6년 4월 23일 정축 2번째 기사.

42) 어헐리당안에서 중앙과 동북에서 한군기의 갑사 양성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순치제에게 조선의 교관 파견을 요청하는 상주를 올렸다.

### Ⅲ. 전황에 대한 동북지역 관리와 병부의 보고

#### 1. 동북 팔기의 상황과 동북관리들의 요청

도니당안에서 언급된 동북지역 관리들이 요청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도니당안에 기재된 동북지역 관리들의 요청(순치 12년 음력 8월 19일 상주문 중에서)

요청 종목	내역
병력	군대 400명(심양), 한군기 각 구사마다 포수 5명씩(심양), 조총수 500명(조선)
관리	大臣 <sup>43)</sup> 1명, 한군기 내 각 구사마다 梅勒章京 <sup>44)</sup> 2명씩(중양 혹은 심양 외 지역), 각 旗마다 梅勒章京 1명씩(심양)
물품	전선 30척, 전선 (조선), 장군포 20문, 쌀(영고탑), 쌀(조선)

음력 8월 19일 동북지역 관리들은 상주문을 올려 동북지역에 병력과 관원 및 군수물자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거리나 물길 등의 이유로 병력과 군수물품을 북경과 남방에서 직접 지원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거리상 가까운 심양과 영고탑 지역, 그리고 조선으로부터 지원받기를 요청했다. 아울러 이들은 목단 외 지역에서 종군 중인 한군기 장교의 파견도 요청하였는데, 이는 전투 경험이 많은 장교를 지원받아 동북 한군기 내 군인들의 질적 향상을 바랐기 때문이다.

먼저 동북지역 팔기의 육군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루스차르국이 화기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는 한군기 병력 중 특히 조총수가 필요했다. 그러나 동북 지역에 소수의 한군기 부대만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총수 병력이 적었으며, 사격 실력도 떨어진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이 지역에는 수준급의 한군기

43) 대신을 의역한 만문명은 amban이다.

44) 梅勒章京(만문: meiren I janggin)은 기본 팔기체제 내의 旗主(만문: gūsa I ejen) 등급보다 낮고 甲喇章京(만문: jalan I janggin 한문) 등급보다 높은 장교이었다. 팔기 조직 내 명칭에서 만문과 한문 음차를 사용했던 후금시기에 매특장경은 명나라 군대 체제를 참고하여 副將(총2품) 혹은 參將(3-4품)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는데 이를 통해 팔기 내 매특장경의 품계를 추측할 수 있다.

장교들이 적었고, 화약 등의 물자를 보급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조총수를 양성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17세기 조총은 성능면에서 사격 이후의 반동이 심한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시기 조총수들은 사격하는 방법은 쉽게 터득했지만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조총을 활용하는 국가들은 단기간에 많은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 조준사격보다 일제사격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사격도 조총수가 制式訓練을 받아야 하므로 훈련을 담당하는 지휘관의 역량이 중요했다. 그런데 동북지역에 실력 있는 한군기 장교들이 부족했으므로 1656년과 1657년 도니와 어혈리는 각각 조선으로부터 병력을 지원받거나 훈련 장교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한편, 동북 내에서 대량의 조총과 화약 등의 군수물자를 공급하기 어려웠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도 요청하였다. 이 물자는 전문 火砲匠이 만드는 물품이며, 이러한 화포장들은 주로 한군기 부대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곳에 종군하였다. 따라서 소수의 한군기 부대가 있는 동북 지역의 화포장이 적었던 관계로 염초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었다. 아울러 이 지역에 화약 재료 수급 문제도 있어 화약 제조도 쉽지 않았다.

17세기 동아시아에서 사용한 화약은 흑색화약이었다. 이 화약의 재료는 硝石(혹은 焰燭)과 硫黃 및 숯 인데, 숯을 제외한 초석과 유황은 동북지역에서 구하기 어려웠고, 고가의 물품이기도 했다. 재료 중 초석은 초석광산에서 채굴해야 하는데, 초석광산은 다른 지역에 있었고 거리상 멀었다.<sup>45)</sup> 염초는 염초 제조법에 따라 제작하는데 그 재료인 염토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지만<sup>46)</sup> 화포장이 적었던 상황상 이 지역에서 염초 공급은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한편, 루스차르국 정부는 주요 산업이 모피 무역이었으므로 시베리아로 파견되는 원정대와 카자크군에게 화기를 지급했다. 당시 루스차르국의 육군은 수석식

45) 중국 내 초석광산은 山東省 臨沂市 북부, 甘肅省 定西市 남부와 四川省 綿陽市 북부 등에 있다.

46) 염토는 오래된 초가지붕, 처마나 마루 밑의 흙과 이궁이의 오래된 흙과 재 및 박쥐 똥으로부터 채취하였다. 조선정부는 위의 곳 외에도 염초 발을 만들어 염토를 채취하였다.

머스킷을 사용하고 있었다.<sup>47)</sup> 이 머스킷은 조선이나 청나라가 사용하는 매치락에서 발전된 단계의 조총으로 매치락보다 장전속도가 빠르지만, 정확도는 낮은 편이었다. 그래서 루스차르국은 이를 고려하여 일제사격 방식을 채택했다. 그리고 흑룡강 지역에 아찬스크나 쿠마르스크, 네르친스크 등의 요새 도시를 건설하고, 카자크군을 함께 보내어 조총수들이 안정적으로 사격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 다만 루스차르국의 수도 모스크바와 흑룡강 지역은 거리상 멀기 때문에 모피와 보고서를 올리기 위해 수도에 다녀오는 군인들이 가져오는 군수물자에 의존하여 살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동시베리아나 흑룡강 지역의 소수민족들을 약탈했다. 그러나 이곳의 소수민족들은 대다수 화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루스차르국 군대는 유럽의 화약제조법<sup>48)</sup>에 따라 현지에서 직접 제작해야 했다.

위의 분석을 종합하면, 청나라 동북 팔기는 부대 내 한군기 병력과 이들이 사용할 군수물자를 공급할 기반이 약했는데, 이는 한군기가 주로 남방과 북경 지역에 배치된 것과 연관이 있다. 한편 루스차르국군 내 원정대와 카자크군의 대다수가 화기를 소지할 정도로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기타 부족한 물자는 요새 도시 내에서 자체 생산을 하거나 인근 소수민족들로부터 약탈하여 보충하였다.

다음으로 동북지역 팔기의 수군 상황을 살펴보면, 분쟁 초기 주요 전투지가 강 지역이고 루스차르국 수군이 화기를 사용하였으므로 청나라는 한군기 소속의 수군 병력과 이들이 사용할 전선 등의 군수물자가 필요했다. 당시 동북 팔기 내 수군 중 만주기의 수군이 송화강이나 압록강, 두만강 지역에서 활동했다는 것 외에 이들에 관해 서술한 문헌이 거의 없으므로 한군기 소속의 수군을 통해 당시 동북 팔기 내 수군의 모습을 유추할 것이다.

47) 제2차 나선정벌 당시 신류는 루스차르국군이 사용하는 조총을 획득하였는데, 이것이 수석식 조총이었다.

48) 흑색화약은 질산칼륨과 유황, 숯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중 질산칼륨 즉 초석이나 염초의 생산이 각국의 화약무기 사용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었다. 유럽에는 초석광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선과 마찬가지로 염초 발을 만들어 질산염을 생산하였다. 당시 유럽의 화약은 나뭇재(탄산, 칼륨)를 물에 녹여 수산화칼륨 용액을 만든 뒤 염초 발에 동물의 똥이나 오줌을 발효시켜 만든 질산염 용액과 섞는 방식으로 제조되었다.

한군기에 소속된 수군은 명나라 출신 수군들이 많았다. 그러므로 명나라 수군의 전술 등을 근거로 분쟁 초기 수군의 모습을 분석할 수 있다. 명나라 수군은 海禁政策으로 인해 주로 강이나 연안 지역에서 활동하였고, 전선도 이에 맞게 작게 건조하였다. 다만 일부 중·대형 전선도 있었는데, 이 배는 원양항해가 가능하였다. 명군의 전선으로 福船,<sup>49)</sup> 沙船,<sup>50)</sup> 八獎船,<sup>51)</sup> 海船,<sup>52)</sup> 唬船<sup>53)</sup> 등이 있으며, 이 중 복선은 대형 전선이고 나머지는 중·소형 전선이었다. 명나라 수군의 전술은 근거리에서 화포나 총을 쓰는 것이었다. 청나라와 루스차르국군의 주요 전투지가 동북 강 지역이므로 한군기 소속의 수군들은 명나라 시기 전선들을 그대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며, 전술도 비슷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때 루스차르국군의 수군은 주로 카자크족 수군으로 구성되었다. 이 시기 루스차르국은 부동항을 건설하기 전이었으므로 자체 내 수군은 없었다.<sup>54)</sup> 카자크족은 유목민족이지만 시베리아 지역에서 해적활동을 했기 때문에 항해술에도 능숙했고, 이들 중 일부가 페레야슬라프조약(1654)에 따라 루스차르국군에 편입되었다. 본래 카자크족 수군의 활동지역은 시베리아와 동유럽 지역 내 강 혹은 內海지역이었으므로 이들이 사용한 전선은 소형 깰리선이며 그 길이는 18m였다. 이후 이 수군은 시베리아 개척에 따라 겨울에도 바다에서 항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원양 항해에 쓰이는 중·대형 깰리선도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은 도니당안에서 언급되어 있다. 당시 중·대형 깰리선은 길이가 35m-42m이고, 너비는 3.6m였다.

49) 복선은 樓船, 栢艦, 烏尾福船 이라고도 불린다. 길이는 약 31m이고 너비는 약 6.8m이며 평저선이다.

50) 사선은 수심이 얇은 연안 등에 적합한 선박이었고, 주로 절강성과 복건성에서 사용되었다. 길이는 약 12.8m이고 너비는 약 3.2m이며 평저선이다.

51) 순시용으로 쓰는 전선이다.

52) 작고 빠른 전선이다.

53) 호선은 叭喇唬船이라고도 불린다. 길이는 약 24.2m, 너비는 9.5m이며 평저선이다.

54) 이 시기 루스차르국의 무역항은 북극해의 아르한겔스크 지역이었고, 부동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루스차르국군은 따로 수군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후 대북방전쟁(1700-1721) 과정에서 루스차르국은 이조라(러시아문: ижора) 지역을 점령하여 이곳에 부동항들을 건설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였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군부대를 창설하였는데, 이것이 발트함대이다.

당시 청나라와 루스차르국은 모두 전선 위에서 조총이나 대포를 근거리에서 사격하는 전술을 활용하였는데, 이때 선박의 크기가 작으면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다. 당시 동·서양의 초기 조총과 화포는 사격할 때 반동력이 심했다. 그래서 이 반동력을 흡수하기 어려운 소형 전선일수록 사격 후 선박 자체의 손상이 심하고 명중률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완으로 대포를 선체에 매달아서 쏘면 명중률이 더욱 떨어졌다. 아울러 선박이 작으면 실을 수 있는 화기의 수가 제한되므로 근거리 포격전에서 상대에 대한 치명타율은 낮아지고, 피탄율이 높아지므로 배가 더 빨리 침몰했다.

## 2. 兵部의 논의

도니당안에서 언급된 병부의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도니당안에 기재된 병부의 논의안  
(순치 12년 음력 8월 21일에 논의하고 23일 작성한 상주문 중에서)

지원 종목	내역
병력	군대 400명(심양), 우전초하 각 구사마다 포수 5명씩(심양), 육신 100명, 한군기의 보병, 화포장, 선박 건조 장인, 노꾼, 조총수 300명(조선), 선박 건조 장인(조선), 노꾼
관리	각 기마다 장군 1명씩(심양), 한군기의 구사마다 노장 1명씩, 代子 <sup>55)</sup> 1명씩,
물품	홍이포 4문(묵던), 파궁포 4문(심양), 수례(심양), 소(심양), 철, 밧줄(조선), 철(조선), 쌀(조선)

동북 팔기 지휘관들의 요청을 접수한 병부는 내부에서 논의한 것을 순치제에게 상주하였다. 병부는 심양에 주둔한 군대 400명과 한군기의 각 기마다 5명씩 포수를 파견하는 요청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조선에서 조총수를 차출하는 요청 자체는 수용하였으나 그 수를 300명으로 줄였다. 그리고 병부는 갑사 100명, 한군기 소속의 보병, 화포장과 선박을 건조하는 장인 및 노꾼을 추가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병부는 심양의 각 기마다 장군 1명씩 차출하는 요청만 수용하였다.

55) 代子の 만문는 funde bosokū 이다.

다른 무관들에 대한 요청은 각 기마다 노장 1명씩, 대자 1명씩 차출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병부는 현지에서 전선을 건조할 수 있게 장인과 관련 물품을 지원하고 조선으로부터도 장인과 물품을 지원받고자 하였으며, 장군포 20문 대신 홍이포 4문과 파궁포 4문으로 대폭 줄여 보내고자 하였다.

병부에서 위와 같은 의견을 낸 이유는 남방과 수도지역에서 동북으로 대규모 한군기 부대와 이들이 사용할 물품을 직접 지원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는 관리 파견에도 영향을 주었다. 당시 동북 관리들이 매륙장경 등 고위급 장군의 파견을 요청한 이유는 이들과 함께 병력이 파견 되기 때문이다. 당시 청나라의 장군은 품계만 있고 업무가 없는 장군<sup>56)</sup>과 무관직으로서의 장군으로 나뉘었다. 전자의 장군은 소수의 수행원만 데리고 다닌다면, 후자의 장군은 통솔하고 있는 부대와 함께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만일 무관직의 매륙장경을 동북으로 파견하면 다수의 병력을 파견해야 하므로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병부는 되도록이면 군수품을 현지에서 조달하고자 했다. 당시 심양이 동북전선에서 거리상 가까웠지만 양 지역을 잇는 수로가 없었으므로 육로를 통해 직접 전달해야 했다. 이 때문에 병부는 흑룡강 지역 내 관부가 설치된 영고탑 지역 등 현지에서 군수품 조달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다.

병부는 조선의 조총수를 동북으로 파견하는 요청 자체는 수용하였지만 그 수를 줄였는데, 이는 제1차 나선정벌 후 청나라의 조선 조총수에 대한 대우에서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청나라는 상국으로서 조선에 파병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無償으로 차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椴島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조선군 파병에 대한 보상으로 조선 국왕 仁祖(재위기간: 1623-1649)에게 은 1천 량과 비단 100필 및 말 2필을 주었다.<sup>57)</sup> 그리고 제1차 나선정벌 때 조선군의 식량 보급을 영고탑 지역에서 대신 담당하였고,<sup>58)</sup> 제2차 나선정벌 때 은량으로 보상하였다.<sup>59)</sup> 청나라는

56) 이들은 녹봉을 지급하기 위해 임명되었다.

57) 『同文彙考』 別編 卷之二 錫賚 平椴島後賜物勅.

58) 中國第一歷史檔案館 소장, 당안번호: 02-10-02-2109-006, 당안명: 「著戶部發給寧古塔官糧食用」.

59) 『通文館志』 제9권 효종 10년 기사.

後金 시기부터 동맹을 맺은 국가나 민족에게 파병 요청을 하면 이에 대한 報償을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를 조선에도 적용한 것이다. 이후 이 조치는 規例로도 제정되어 조선군 파병이 있을 때 보상안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청나라는 조선의 조총수를 동북으로 많이 파병할수록 그에 따른 보상액이 많아지므로 파병 인원에 제한을 두었다.

이렇듯 청나라 내부에서 조선의 조총수 파견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거리 상 조선이 동북 전선에서 가까웠고 조선 조총수의 실력에 대해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청나라는 후금 시절부터 丙子胡亂(1636-1637), 송산전투(1641), 제1차 나선정벌 등을 통해 조선 조총수의 실력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당시 조선의 조총수는 소속과 훈련 수준에 따라 실력이 달랐으며, 기본적으로 조준사격 방식을 지향하고 있으나 일제사격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募兵制로 선발되어 4군영에 속하거나<sup>60)</sup> 함경도 혹은 평안도 지역의 東伍軍 소속의 조총수들은 조준사격을 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조총수들은 조선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화약을 지급받았는데,<sup>61)</sup> 이는 청나라가 조선 조총수들의 파견을 고려한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당시 조선은 염초를 자체 생산하거나 중국으로부터 초석을 수입하고 있었으며, 倭館무역을 통해 유황도 안정적으로 수입하였다. 火器都監이 이러한 사무를 담당하였고, 孝宗은 북벌정책에 따라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의 조총수가 파견할 경우 청나라는 조선군이 쓸 화약을 별도로 동북 지역에 공급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파병은 청나라에게 위협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당시 청나라는

60) 조선 내에서 수도와 경기지역의 군사체계는 5군영체제(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로 운영되고 있었고, 지방은 속오군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청-러국경분쟁 초기인 조선 효종(조선 제17대 왕, 1649-1659)시기에는 오군영체제가 아직 완비되기 전으로 禁衛營(1682년에 설립)을 제외한 4군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5군영의 군인들은 직업군인들이 주축이었다. 이에 반해 지방의 군인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동원하는 속오군이 주축이었다. 이에 훈련도가 높은 5군영 조총수들이나 평안도와 함경도 등 북쪽 국경지역 조총수들은 상대의 배 등 급소를 조준해서 사격하는 조준사격방식을 채택했고, 훈련도가 낮은 남쪽 지방의 속오군에게 조준 사격을 가르치기는 하였으나 일제사격방식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61) 『승정원 일기』 효종 5년 음력 2월 2일 기사.

친청파를 통해 조선군이 효종의 북벌정책에 따라 양성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청나라는 파병을 요구할 때 조선군을 사루후다 휘하에 편입시켜 통제하였다.

한편, 병부는 조선 수군 파견 요청을 수용하였다. 이 안은 제1차 나선정벌과 제2차 나선정벌 때 없었던 논의였다. 이는 루스차르국 수군이 대형 갤리선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응책이었다고 추정된다.

16-17세기 조선 수군은 연안 지역이나 강 지역에서 근거리와 원거리 함포사격 전술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 乙卯倭變(1555) 이후 대형 전선인 板屋船을 건조하였다. 이는 비슷한 지형에서 근거리 사격을 지향하고 중·소형 전선을 주로 활용하는 중국과 일본의 수군 전술과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판옥선은 원거리용 대포를 대량으로 실을 수 있고, 이 대포의 반동력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다. 판옥선의 크기는 가장 큰 판옥선인 上船 기준으로 길이 26.13m-27.03m이며, 2층 구조였다. 다만 판옥선은 두껍고 무거운 목재를 많이 사용하므로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저선이므로 파도나 조류 등에 취약했다. 따라서 조선 수군의 전투력은 판옥선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운용하는 지휘관의 역량에 따라 좌우되었다. 동북 팔기 지휘관들과 병부 내 관리들은 이미 병자호란이나 가도정벌 등을 통해 조선 수군의 특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비록 청나라 관리들이 마지막으로 조선 수군의 전투를 본 것이 18년 전이긴 하나 이들은 조선 수군의 장점에 집중하여 동북 팔기 수군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판옥선을 동북 전선으로 직접 가져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당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지역과 송화강 내 河港지역 사이의 거리가 멀었고, 판옥선이 육중한 선박이기 때문에 육지로 직접 옮기기 힘들었다. 그러므로 병부는 조선이 선박 장인들과 노꾼 즉 조선 수군 소속의 격군을 파견하고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물품을 직접 가져오는 대안을 제시했다. 판옥선에 사용되는 목재는 소나무와 노나무, 전나무 및 느릅나무 등으로 동북으로 보낼 흔히 나는 목재이므로 조선은 별도로 목재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장인과 격군을 송화강의 하항지역에 파견하면 되었다.

## IV. 청 정부의 결정과 황제의 윤허

### 1. 議政大臣<sup>62)</sup>과 병부의 최종안

병부 관리들은 1차 내부 논의 이후 다시 의정대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북으로 보낼 병력과 물품의 지원 안을 다시 작성하였고, 이를 순치제에게 다시 상주하였다. 이때 병부 관리들과 의정대신들 사이의 의견에 다소의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조선의 전선을 동북에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다. 순치제는 병부와 의정대신들의 최종안을 윤허했다.

[표 4] 도니당안에 기재된 의정대신들과 병부의 최종안(순치 12년 8월 26일 상주문 중에서)

지원 항목	내역
병력	한군기 군인, 포수, 선박 건조 장인, 조총수 300명(조선), 군대(심양)
관리	한군기 소속 장군, 만주족 대신, 戶部의 장긴, 禮部 <sup>63)</sup> 장군 투크서, 장군(심양)
물품	화약, 홍이포, 소, 수레, 총알, 500마리 말(심양)

3장에서 언급한 병부의 논의안과 최종안을 비교하면 우선 병력에서 양자의 의견 차이가 나타난다. 의정대신들은 병력 지원에 대해 병부의 안보다 더 줄이고자 하였다. 같은 취지에서 갑사 파견과 화포장 파견도 제외하였으며, 화포 등을 다루는 장인의 파견도 제외하였다. 이는 동북 전선으로 한군기 소속의 병력과 기술자들이 파견될 경우 심양지역 내 한군기의 병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동북 전선이 무너질 경우 심양이 위협 받는 일을 대비하고자 하였다.

62) 의정대신의 만문명은 hebei amban 이다. 청나라 天命帝(재위기간: 1616-1626)는 기주들이 국정을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 이에 따라 崇德帝(재위기간: 1626-1643)는 崇德 2년(1637) 의정대신제도를 만들었다. 임관 후 보정대신 瓜爾佳 鰲拜(만문: guwalgiya oboi, 1614-1669)가 의정대신으로 어린 강희제(재위기간: 1661-1722)를 대신해 국정을 처리했다. 강희제는 친정을 시작한 후 이 직위를 有名無實하게 만들었다. 이후 乾隆帝(재위기간: 1735-1796)가 乾隆 56년(1792) 이 제도를 최종적으로 혁파했다.

63) 예부의 만문명은 dorolon I jurgan 이다.

아울러 관리 파견에서도 양자의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최종 의결안을 살펴보면 무관의 비중이 줄고 문관의 비중이 늘어났다. 한군기 소속 장군과 노장, 대자 등 실무진을 만주족 대신과 예부, 호부의 장군과 같은 문관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되도록 동북지역으로 병력을 적게 파견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의정대신들은 조선 판옥선과 수군의 파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는 청나라의 보상액과 관련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판옥선은 1척당 100-120명의 격군들이 노를 젓기 때문에 조선 수군을 파견할 경우 청나라가 지출한 경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의정대신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이를 반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군수물자 방면에서 병부와 의정대신들의 의견 차이가 가장 적었지만 조선에서 조공을 받는 부분에서는 의견 차이가 컸다. 병부의 의결안과 병부-의정대신들의 최종안을 비교해보면, 청나라 내에서 철 대신 완성품인 총알을 보내고 홍이포만 보내는 등의 작은 변화가 있었다. 여기에 동북지역 만주기와 몽고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말 500필을 지원하는 안이 추가되었다. 다만 조선 수군의 파견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옥선과 철 등을 조공 받는 안은 제외되었다.

## 2. 순치제의 결정과 실행여부

의정대신들과 병부는 최종안을 순치제에게 상주하였다. 순치제는 이 제문 앞에 주필로 ‘의논한대로 행하라!’(만문: gisurehe songkoi obu)라고 적어 이 안건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한 시행 관련 기록은 현재 개방되어 있는 청나라와 조선의 문헌 중에 없다. 그래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원안의 시행을 지시받은 병부와 호부의 후속 당안이나 예부의 조선군 파병을 요구하는 咨文이 새로 발굴되어야 한다. 혹은 제2차 나선정벌 때처럼 청나라와 조선 측 주요 정부 자료에 기록이 누락되어도 이 파병을 증명할 조선측 관리들의 기록이 새로 발굴되어야 한다.<sup>64)</sup>

64) 제2차 나선정벌 관련 기록은 『동문회고』와 『통문관지』, 2차 정벌 당시 조선군을 통솔한 신류의 저서 『북정록』에 있다. 그러나 청나라의 『청실록』, 조선의 『조선왕조실록』, 『承政院日記』에는 관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중국 제일역사당안관의 청나라-루스차르국 사이의 분쟁 관련 당안 정리작업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에 분쟁 초기 제1차 나선정벌과 관련된 연구는 청나라 측 관련 기록이 『청실록』 외에는 없어 주로 조선 문헌에 의존하였다. 그러다가 2010년대 초 해당 당안관의 당안 정리작업 중에 1차 정벌과 관련된 「爲軍務事」 등의 6부 자료가 개방되어 청나라 내부에서 어떻게 파병 관련 사무를 처리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뒤이어 또 다른 분쟁 초기 관련 6부 당안인 어혈리당안과 도니당안도 개방되었으므로 차후에도 분쟁 초기와 관련된 추가 자료들이 개방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황제의 승인을 받은 후 실무를 담당하는 곳이 6부이므로 6부에서 이 안을 처리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당안관의 추가 개방 자료 중에 6부에서 지원안을 처리하기 위해 작성한 자문이 발견된다면, 설사 다른 청나라 문헌이나 조선 문헌에 해당 기록이 없어도 이 지원방안이 시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될 것이다.

혹은 조선시대 관리들의 문집에서 분쟁초기 1654년과 1658년 파병 외의 추가 파병 기록이 발견된다면 해당 지원안이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파병과 관련된 조선 관리들의 문집과 일부 정부자료의 교차 검증으로 파병 실행 여부를 증명한 사례가 제2차 나선정벌이다. 이 파병 관련 기록의 경우 1차 파병 때와 달리 상당수 양국 정부측 자료에서 기록이 아예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다만 이 정벌에 참전한 조선군 지휘관 신류의 저서『북정록』을 통해 파병이 실제로 행해졌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 V. 결론

본 논문은 갓 공개된 도니당안의 분석을 통해 청-러 국경분쟁 초기인 1655년 동북 팔기의 상황과 이 부대에 대한 지원안을 연구하였다. 이 당안에 따르면

1655년 여름 동북지역 팔기는 루스차르국군의 남하를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전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들은 동북 전선의 전황을 보고하고, 한군기 소속의 병력 지원과 조선군 파병 등을 요청했다. 병부는 이를 접수한 뒤 동북 관리들의 요청안을 대부분 수용했으나 지원 병력의 수를 줄이고 지원 물자를 현지에서 조달하도록 의결했다. 이러한 병부의 의결안에 대해 의정대신들은 다시 지원 병력을 더 줄이고 조선 수군의 파병을 제외하는 최종안을 의결하였다. 그리고 순치제는 이 최종안을 승인하였다.

병부와 의정대신들이 동북으로 보낼 한군기 병력 수에 대해 의견차가 있었던 것은 당시 전황상 남방이나 수도 지역에서 동북으로 많은 수의 한군기 병력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북 관리들은 한군기와 비슷한 병과로 구성된 조선의 조총수와 수군 파견을 제의하였고 병부 관리들도 이를 수용하였으나, 의정대신과 병부의 최종안에서 조총수 파병은 수용되고 수군 파견은 수용되지 않았다.

이 도니당안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지원안의 실행에 관한 기록이 조선이나 청나라의 어느 문헌에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실행 여부가 불분명하다. 청나라 정부가 지원안을 시행했을 때 6부에서 작성한 당안이 중국 제일역사당안관에 서 발굴되거나 제2차 나선정벌의 『북정록』 경우처럼 파병에 참여한 관리의 문집이 발견된다면 이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원전

- 『大清歷朝實錄』,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朝鮮 承文院, 『同文彙考』, 서울大學校 奎章閣韓國學研究院  
申澗, 『北征錄』  
朴泰根, 1980, 『國譯 北征日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朝鮮 備邊司, 『備邊司謄錄』, 서울大學校 奎章閣韓國學研究院  
朝鮮 承政院, 『承政院日記』, 서울大學校 奎章閣韓國學研究院  
郎丘, 1654, 「著戶部發給寧古塔官糧食用」, 中國第一歷史檔案館 (당안번호: 02-10-02-2109-006)  
多尼, 1655, 「題爲羅刹入境侵擾請派官軍進剿事」, 中國第一歷史檔案館 (당안번호: 02-02-019-001251-0027)  
額赫里, 1656, 「題議派漢軍炮手至寧古塔并請朝鮮兵丁教習當地兵丁使用鳥槍」, 中國第一歷史檔案館 (당안번호: 02-02-019-001252)  
巴哈納, 1654, 「題報本年八旗滿蒙漢軍人丁數目事」, 中國第一歷史檔案館 (당안번호: 02-02-006-000400-0027)  
『朝鮮王朝實錄』, 서울大學校 奎章閣韓國學研究院  
朝鮮 司譯院, 『通文館志』, 서울大學校 奎章閣韓國學研究院  
『平定羅刹方略』, 中國中央民族大學

### 2. 연구서

- 桂勝範, 2013, 「17세기 중반 나선정벌의 추이와 그 동아시아적 의미」, 『史學研究』 110  
桂勝範, 2018, 「러시아 자료로 본 1650년대 흑룡강원정(나선정벌)」, 『열상고전연구』 65  
권혁래, 2013, 「북정록과 나선정벌 노정 연구-회령-목단강시 구간을 대상으로」, 『열상고전연구』 37  
南昌龍·顧銘學, 1990, 「羅禪征伐研究及其有關史料」, 『東北師大學報』 1990년 6期  
唐烈, 2017, 「試羅禪征伐對當時東北亞局勢的影向」, 『延邊大學學報』 2017년 5期  
문상명, 2018, 「나선정벌 신류 장군의 북정록 北征錄에 담긴 허저주(赫哲族)의 삶과 문화-헤이룽장성 자무쓰시 아오치춘(佳木斯市 敖其村) 허저주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65  
박지배, 2018, 「17세기 중반 러시아의 동북아 진출과 '나선정벌'의 의미」, 『역사학보』  
謝桂娟, 2015, 「華夷觀視覺下的中朝宗藩關係-以明清時期爲例」, 『韓國歷史研究』 240

- 윤호랑, 2010, 「효종의 북벌정책과 나선정벌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재검토」, 『군사연구』 129
- 崔元午, 「2018. 나선정벌기 흑룡강 유역한 소수민족의 삶과 대응—다호르그사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65
- 韓曉梅, 2014, 「乾隆朝滿文檔案中的雅克薩與尼布楚」, 『滿語研究』 2014년 1期
- 홍은, 2018, 「額赫里的 檔案으로 보는 청-러 국경분쟁 초기 漢軍八旗軍 상황과 조선을 통한 문제 해결」, 『東亞人文學』
- Forsyth, James, 1994 “A History of the Peoples of Siberia: Russia’s North Asian Colony 1581-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ncoln, W. Bruce, 2007, “The Conquest of a Continent: Siberia and the Russians”, *Cornell University Press*
- Patrick March, 1996, “Eastern Destiny: the Russians in Asia and the North Pacific”, *Greenwood Pub Group*

투고일: 2023년 03월 28일 심사완료일: 2023년 04월 08일 게재확정일: 2023년 04월 16일

■ Abstract ■

## Uncovering the Early Days of Sino-Russian Border Conflicts : Insights from the Archives of Doni and the Qing Dynasty's Response

Hong, Eun (Heilongjiang university in China)

This essay examines the war situation in the Northeastern China in the early days of Sino-Russian border conflicts and the measures taken by the Qing Dynasty to support the war efforts. It uses the archives of Aisin Gioro Doni (愛新覺羅 多尼, 1636-1661) reported to the Emperor Shunzhi (順治帝) in 1655. These archives shed light on the internal discussions within the Qing Dynasty. They also include details on the war situation of northeastern Jakūn Gūsa (八旗) in the early days of Sino-Russian border conflict, the discussions between Ministry of Military Management and Hebei Amban (議政大臣), and entries of Emperor Shunzhi's edicts.

A thorough exploration of these archives found that after the defeat of the Qing army at the Battle of Kumarsk in 1655, the situation in northeastern Jakūn Gūsa was unfavorable, with several clan villages surrendering to the tsardom of Russia. The commanders of the troops requested military supplies, the dispatch of troops, and assistance of naval forces belonging to the Ujen Cooha (漢軍八旗). The Ministry of Military Affairs agreed to most of the requests but reduced the number of dispatched troops and obtained materials for military supplies from nearby areas. Hebei Amban eventually agreed with most military officials' discussions, but refused Chosun's dispatch of naval forces to avoid costs.

While Emperor Shunzhi accepted the proposal between Hebei Amban and the Ministry of Military Affairs,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etermine whether the proposed plan was implemented. The essa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using archives such as the Archives of Doni to better understand literature such as 『北征錄』 and sheds light on the efforts made by the Qing Dynasty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Sino-Russian border conflicts.

Key words: Archives of Doni, Sino-Russian border conflict, Jakŭn gŭsa (八旗), Hebei Amban (議政大臣), Ujen Cooha (漢軍八旗), Chosun's expedition to Russia